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6年(檀紀4319年) 10月31日 第116號[1]

발행인 鄭申在
편집인 崔在益
인쇄인 哲炫旭

東國大學校同憲會
서울특별시 종구 원동 3가 26
전화: 267-8568
274-7449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운행지로번호 7500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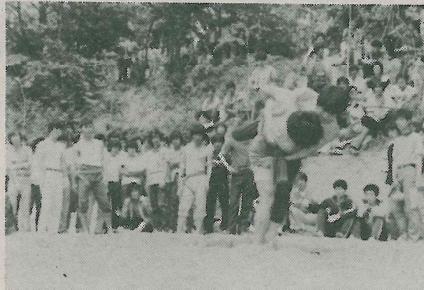
흰코끼리 가장 크고 어진 힘으로



체전중 열린 차전놀이 광경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강강수월례



▲민속제 행사중의 하나인 씨름대회



▲동국의 기상과 응 지를 한껏 펼 친 차전놀이



東國80주년 기념祝典



▲축제가 끝난뒤 신령나개 춤파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통성을 살린 마당놀이의 한장면

민족의지 살려 전통私學과시해 공통체 놀이등 현실참여 적인 색채짙어

◇80周年기념祝典

東國 80주년을 기리는 祝典 「대동제(大東祭)」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대학에 있어서 축제는 지성과 남한의 발로라는 통상개념을 넘어서 80년이란 足跡을 다시금 새긴다는 의미에서 이번 축제는 여느해의 그것보다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말로만 「東國의 역사」「東國의 힘」 『云云』했지, 점차 의미를 새겨볼만한 행사가 없었던 것이, 여태까지 축제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떠져불리치면, 여태까지 해왔던 축제의 방향에 대해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을뿐더러, 반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다. 이에 본稿는 80주년을 맞는 「東國祝典」의 행사를 주제로 살펴본다.

첫날, 강연회, Symposium 등 학술제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통놀

이를 되살린 「거리극」 등 오락 행사로 이어졌다.

강연회별로 보면 첫째날 「종교 Symposium」「여성문제 Symposium」「국문화 강연회」, 둘째날 「민족교양 Symposium」, 세째날 「교수초청 강연(자연과 철학의 만남)」「시사Symposium」 등 다채롭게 펼쳐졌는데 전체적으로 요즘 관심의 촛점이 되는 흥분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또 전시회별로 살펴보면 축제와는 별도로 東大新聞社에서 주최한 「東國 80주년사진전」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디자인 포장센터 3층전시실에서 열렸다.

이사진전에서는 校內 간행물을 도록 전시되어 교내는 물론 校外에서도 큰 관심의 촛점이 되어 대성황을 이루는 호평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2백30여점의 사진과 각 분야별 校内外 교수진의 집필로 이루어진 서적 전시회。

축제기간중 전시회로서는 「컴

퓨터 program 전시회」「문화재 전람회」「대학생의 의식과 현시화의 협력이시」「동국 서법대전」「원아그림 전시회」「졸업생 사진 전 및 속보사진전」「소년원생 그림전시회」「국제문화 자료전시회」「교수초청 강연(자연과 철학의 만남)」「시사Symposium」 등 다채롭게 펼쳐졌는데 전체적으로 요즘 관심의 촛점이 되는 흥분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사무회에서 주최하는 「역사인 물법전」 응원부의 「응원제전」, 아미ュー이 애그리의 「초청아구대회」, MRA의 「Sing Out 공연」, 유스호스텔의 「여행슬라이드 상영」, KUSA의 「감사의밤」, 동국문화학회의 「동국문화연설대전」, 「연무시범」, PTP의 「세계 의상 발표회 및 문화상영」, 자연과학연구회의 「교수초청 강연회」「문화재 연구회의 「탑돌이」 등 대학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씨름행사가 중점이 된것이 특징이다.

각학과별로도 강연회, 전시회 등이 있다. 특히 東國文學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보다 굳건한 틈을 잊기위해 마련된 「국문화 강연회(해방이후 한국 문학의 흐름)」나 동국문화학회의 「동국문화학회」 등은 동문과 재학생의 유대관계라는 축면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행사로 여겨진다.

축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놀이문화가 아닐 수 없다. 전통성과 현대미를 조화로운 놀이문화, 특히 「우리 것」을 찾고자하는 운동이 요즘 학생들 사이의 불로 일면서 축제들이 이문화는 전통미를 살린 마당극, 판소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첫날 개막을 알리는 「거리극」이 씨름연합회의 주최로 전교정에 걸쳐 열렸으며 이어 관악관악회의 「여행슬라이드 상영」, 소리 「톱바다」가 출마생회 주최로 열렸다. 둘째날은 마당극 「어머니 해맑은 웃음의 그날을 위해」가 여성학회 주최로 이어 초청마당극이 출마생회 주최로 열렸으며 「금지곡 페스티벌」도 열렸다.

또 노래극도 「내 여기 살아야 하므로」라는 타이틀 아래 열렸으며, 마지막날 공동체놀이, 차전놀이, 본놀이(도깨비야구) 등

등도 열렸고 폐막제로 강강수월례와 횟불제가 대문동장에서 축제의 마지막 밤을 밝혔다.

또한 날대별 행사로 법정대의 「모의국회」가 열렸고 매일 저녁 7시부터는 영화상영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축제 양상 또한 해가 거듭할수록 그 색채를 달리한다.

서양것에서 동양의 것으로, 현대의 것에서 전통의 것으로 그 방향을 달리하고 있으며 소비문화풍조에서 보다 생신적인 문화양상의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특히 공동체놀이, 차전놀이, 강강수월례들은 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이ру는 대화합의 장으로 동국발전의 핵심을 나타내는 행사로 단결된 힘을 보여준다.

또한 면화의 열을 고취시키는 각종학술 세미나, 스포츠자율 등도 다양적으로 펼쳐져 동국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축제로 범고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 즉 東國精神의 새 면모로 「新」 「新」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수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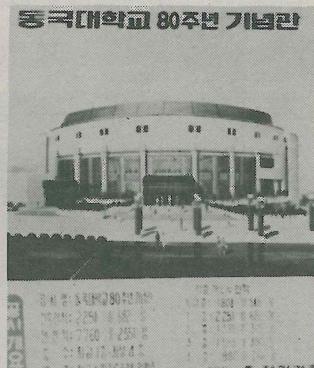
東國80周年 기념사업



▲ 대교 80주년을 알리는 대형 플랭카드가 명진관 정면에 걸려있다.



▲ 東大新聞社에서 주최한 「校史사료전·교내 간행물 전시회」

▲ 대교 80주년의 영원한 상
작 80주년기념관의 미래 모습

「東國80주년기념관」10월 25일 착공

萬海詩碑건립 비롯, 각종학·예술행사도 다양

◇ 80周年기념사업

개교 80년의 명실상부한 민족의 사학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모든 동국인에게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지난해 말 모든 東國人的의 속이었던 대설립이 문교부로부터 인정된 후 교세확장을 위한 나각진인 건설 등 축사업, 기념발간사업, 학술회의 개최들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한편으로 추진·계획중에 있다.

대설립의 인기후 불교종합병원의 부지모색, 설비준제 등 금년초부터 계획되었던 문제들은 장기적인 계획안을 갖고 방안 모색중에 있으며 80주년기념관은 마스터플랜이 확정·공개되었다. 일명 학생문화관이라고도 불릴 東國80주년 기념관의 주요 끝자리를 살펴보면 明進館(서조관) 옆 부지에 2천석 규모의

대강당을 비롯하여 국제 세미

나강과 소극장등으로 이용될 6

백50석 규모의 중강당이 들어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1천명 수용능력

의 전시실과 연회장, 2백50석

을 갖춘 교수식당과 1백50평

용적력의 禮堂이 설치되어 그

동안 부족했던 문화예술 공간

의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비단 東國人

모두의 열원인 대강당을 갖췄

다는 의미와 이곳에서부터 동

문화·재학생과의 유대감 강화

(대학의 장·마련), 대학문화의

새로운 축제이라는 여러각도

의 잇점을 갖고 있다.

이 80주년기념관은 지난 25일

기공식을 가졌다.

현관 원통관(공대건물) 증축

과 더불어 혜화관(공대건물)

증축공사 및 경주캠퍼스 스탠드

신축공사도 모두 마무리지었다.

기념발간사업 역시 「동국70년

사」를 수정보완한 「동국80년

사」의 편찬을 비롯, 「사진으

로 본 동국80년」을 東大新聞

社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편집,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중국·일본·미국

·스위스·인도·파키스탄 등 각

국 학자들의 불교학술논문집

「불교와 제 과학」, 무구정

관다라니경과 고려속장경 등의

외귀를 경 영인본, 신라판계 문

현목록들도 발간할 계획에 있다.

기타 그밖의 행사로서 만해

(元海) 시비 건립, 기념식수,

포스터 전선전설치 등 각각

행사들이 계획 추진 중이다.

이를 시작해 살펴보면 포스

터 전선전설치는 금년중 시작

하며 3개교문(정문·중문·후

문)에 세워지고 전국 주요도

시에는 포스터가 불게될 계획

이며, 코끼리상 재조성을 금년

중 시작하여 2~3년후 완공

을 바라보면서 연차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만해시비 건립은 교내에 세워지며 이에 따른 부자적인 행사로 불교도서 독후감모집을 벌행한다.

동국80년 사진전과, 인물사는 일부 실책에 출연하는가 하면 인물사는 저서·작품·인물사진들을 수집집에 있다.

이러한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국80년 교사자료실이 금년초 개설운영 되어왔다.

이밖에 시화전, 불교미술전, 한·중·일 고승문집전시회, 불교 예술체제 등 각각 행사들이 준비, 일부는 시행 되었는가 하면 일부는 활발히 계획·추진 중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국80년은 밤전의 새로운 세기가 되어야 함이 분명해졌다. 또 그에 따라 치밀한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숨어서 노력하는 東國人들이 있기 때문에 東國80년의 상아탑은 굳건하다고 볼수 있다.

동문화·재학생, 교수와 그밖의 모교 관계자들의 피와땀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이에 동문들 역시 지켜보는 관조자의 입장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게 해왔듯이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주는 선우주의의 보우당당한 노름이 되어야 한다.

극심한 취업난, 장학금의 수혜폭 확대를 당면과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고 따라서 동문과 재학생의 원활한 유대관계 개선등 보다 인간미 넘치는 東岳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의대가 설립되고 불교종합병원이 세워지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에따라 우리의 어깨도 자연 으쓱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80주년 기념관이 서게되면,香계만 보이던 캠퍼스가 웬지 더 넓어보이고, 내집의 안방처럼 따뜻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교외의 체육부가 校外대회에서 위세를 펼치면 몸이 터져라 응원하는 마음처럼同門이 누구도 母校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 한동대학교 행사 80주년 기념
▲ 80주년 학술의 밤을 밝혔다.

▲ 80주년 학술의 하나로 10월 11일 열린 「학술」

東國學園 산하 각급교 人事

지난 9월 12일 입학한 학교법인 동국학원신학초·중·고교의 인사이동에 서 **李光載**(45불교) 동문이 동대부고 교장에서 명성여고 교장으로 옮길 것을 비롯 전반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이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光載**(45불교) 동문이 동대부고 교장에서 명성여고 교장으로.

李동문은 모교 경리부장, 총무과장, 재단사무국장을 거쳐 명성여고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사로 활약하고 있다.

▲**金鷹性**(48불교) 동문이 명성여고 교장에서 동대부고 교장으로.

金동문은 신관중교장, 해동중·고교 교감, 동대부중교장을 거쳐 명성여고 교장을 거쳐 명성여고 교장으로.

金동문은 신관중교장, 해동중·고교 교감, 동대부중교장을 거쳐 명성여고 교장으로 재직해 왔다. 본회 이사.

한편 **朴昌淑**(49혜전) 동문이



▲李光載동문



▲金鷹性동문

체신장려회 상무이사로
朴永煥 동문

朴永煥(49혜전·본회이사) 동문은 최근 그동안 농담과 오만 광장전화국장을 끝으로 정

년퇴임을 하고 재단법인 체신장려회 상무이사로 임명했다.朴동문은 56년 대田전화국 서무과장으로 체신부에 밟을 길은 이해 광화문전화국장, 체신부총무기획과장, 서울시의 전화국장을 등을 역임하고 광장전화국으로 재임해 오던간며 정년퇴임을 맞았다. 노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한朴동문은 현재 본회이사로 활약 중.

명예신학박사 학위받아
金月煥 동문

金月煥(58불교·비인예수교장로회 중경 교회 담임목사) 동문은 지난 8월 15일자로

California Trinity Bible College and Seminary에서 명예신학박사(D.D.) 학위를 받았다.

金동분은 현역 안국기독교청년신도회 총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청소년선도부위원들로 청소년 선도에 힘쓰고 있다. 본회 이사.

중앙일보 이사대우에
鄭雲耕 동문

鄭雲耕(60국문·본회이사) 동문은 지난 9월 25일 중앙일보 편집국 편집위원에서 이사

에 우편지원으로 임명되었다. 鄭동문은 대안일보 경향신문을 거쳐 지난 74년부터 중앙일보에 재직해 오며, 시민단체 '활순이지'와 '중앙만평' 등을

계 극단 「중앙프로덕션」을 설립했다. 「중앙프로덕션」에서는 음악제작과 연극·쇼프로그램 제작을 비롯 가수·연기자를 매니저로 전문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국단 「중앙」의 창단 기념공연으로 모노드라마 '왕이 된 허우아비'를 11월 중순경 공연할 예정이다.

금성투자금융 영업이사
崔秉玨 동문

崔秉玨 동문

홍석 중교장에 재입명 된것을 비롯, 金真煥(60국문)동문이 명성여고 교감에서 동대부중 교장으로, 禹夏秀(62영문)동문이 명성여고 교감으로, 金鳳熙(65불교)동문이 동대부중 교감으로 각각 영전 또는 전보되었다.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이동은 郭實敦(62영문)동교감으로, 黄正圭(61영문)동교감으로, 金炳煥(2부)으로, 金炳煥(2부)이 명성여고 교감으로, 朴東周(2부)이 명성여고 교감으로, 金英煥(2부)이 명성여고 교감으로, 金英煥(2부)이 명성여고 교감으로, 金英煥(2부)이 명성여고 교감으로, 金英煥(2부)이 명성여고 교감으로.

金동문은 신관중교장, 해동중·고교 교감, 동대부중교장을 거쳐 명성여고 교장으로 재직해 왔다. 본회 이사.

한편 朴昌淑(49혜전) 동문은 재임명됐다.

통해 날카로운 세태풍자를 보여 주 일간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鄭동문은 본회이사로, 현재 본부에 개재되고 있는 「東友漫譚」을 접집하고자 했다.

'86 국제건축... 참관
吳鎮模 동문

吳鎮模(61법학·국토개발 연구원 수석연구원·본회이사) 동문이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86 국제건축 종합전」에 참가하고 30일 귀국 했다.

아울러 吳동문은 토큰건축업계 산업체단 단장으로 일본토론회와 水建設(株)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관계 연구기관과의 자료교환업무를 했던 후 일본 건설기술센터와 北陸高속도로 건설현장을 답사하기도 했다.

吳동문은 현재 대안부동산학회 회장, 교교경영대학원원장, 국토개발연구원 도장회 회장직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일동제판주 공장준공
金一 동문

金一(63정치·일정·제관·교금·부동산) 동문은 지난 18일 일동제관주(株) 공장 이전 및 확장공

사 준공식을 가졌다. 새로 이전 확장된 공장은 경기도 성남시 삼대원동 성남제2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다.

金동문은 현재 대성라이온즈 클럽 회장과 한국제판공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본회 이사.

'중앙프로덕션' 설립
鄭性烈 동문

鄭性烈(77연영) 동문은 지난 10월 「중앙프로덕션」과 합

으며, 84년부터 제주도 교육위원으로 교육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저서인 「제주도 민요연구」(下) 발간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출간될 예정이기도 하다.

「美術大展」大賞수상
宣柱善 동문

宣柱善(80불교·목원대강사) 동문은 지난 11일 제 5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서어부문 내상을 수상했다.

동문에 진흥원에서 한국미술협회로 이관되어 올해 처음 민간주도로 열린 이연대전에서에서 동문은 「당나라시인 李容齋의 滅漢詩「無題」」를 서예로 소화하여 대자녀에서 쇠여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담았다.

宣동문은 배재중학 1년부부 터 뜻을 짓은뒤 계속 정진하고, 29, 30회국전입선, 제 1회 미술대전 특선, 2~4회 입선을 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모교 불교사를 졸업후 81~

에서 조사분석부장으로

▲姜斗錫(69경영)=대구지점에서 알기집지점으로

▲李鶴英(71한정)=잠실지점에서 신촌지점으로

▲姜錫水(72경영)=부산지점 차장(3급)에서 인사부차장(2급)으로

▲孫世明(72법학)=조달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羅仁洙(74행정)=운용부 대리(4급)에서 신탁과장(3급)으로

▲李興鶴(79경제)=신촌지점 대리에서 강사실 검사으로

▲李內權(80경영)=충무로지점에서 신촌지점 대리로

▲金成大(82경영)=마산지점 대리에서 대구지점 대리로

▲李正憲(83경영)=기획부에서 대구지점 대리로



移轉·開業

▲박상식(72상학)=최근 영선개발株式(567) 0137

▲韓相仁(73도공)=최근 설비회사인 학선건업 설립. 설립(41) 0456



出入國

▲전진표(61학원)=인간공학관에 연수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출국,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를 거쳐 12월 24일 귀국예정

▲임종식(72상학·현대건설원장부부장)=온해 해외근무 마치고 귀국(71) 2121



結婚

▲金濟局(61경제·본회상무이사)=女希璇(希璇)과 지난 25일 남서울컨트리클럽에서.

▲黃水沫(70경세)=10월 25일 결혼.

▲李松林(72적외)=10월 25일 결혼.

▲조경진(84체육·도교학생생활과)=본인결혼, 지난 5일 한국일보 11층에서.

▲金相洙(85인체)=본인결혼 지난 19일 교통회관 3층 파노라마에식장에서.

▲申興來(85국문·본회前총무)=본인결혼 지난 19일 송탄동원예시장에서.



計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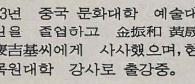
▲趙誠基(62국문·본회감사)=부친상. 지난 11일 자택서.

▲徐慶洙(교원철과교수)=지난 14일 별세. 16일 모교에서 학교장으로 업수

▲辛承古(69경제)=11월 2일 부친상. 4일 발인, 장지는 송추기족묘지.

▲黃善元(73경제·正亞군도次長)=11월 5일 부친상. 강동구 군수동종주 1단지 117동 101호

择進轉補



83년 중국 문화대학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金振학과 黃慶珮 연구원을 기사로 시작했으며, 현재 북원대학 강사로 출강중.

사법시험 9명 최종합격 CPA 2차 4명 합격

지난 22일 발표된 총무처 시행 제28회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 최종 3차시험에서 李殷所(77법학) 동문은 비롯 9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李殷所(77법학) 都重皓(84법학) 李容燕(84법학) 方承晚(84경영) 李賢宰(85법학) 柳重遠(大원) 杜潤柱(원원)

군법무관=白城吉(86법학) 金奭(大원)

한편 지난 9월 26일 발표된 재무부 시행 제21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서도 4명이 합격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경진(85경제) 이구근(86경영) 박건수(86회계) 최대식(대원)

원원

▲趙誠基(67경영)=서울투자부문에서 영업이사로 승진

▲吳聖基(69경계)=주식은행 논현지점 차장에서 장안지점 차장으로.

▲金昌基(77행정)=한일은행 갈현동지점에서 인천지점 대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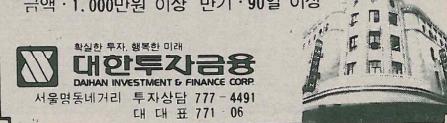
<韓國投資信託>

▲鄭龍諱(63경제)=영업부장

최고년 13.53%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 - 4491
 대 대 표 771 - 06

東國에 살고 東國으로 맷은 인연 "후배여러분, 캠퍼스 커플을 추천합니다."



<26>

夫婦동문

◇趙在浩
(65불교·모교 전산원장)◇閔庚貞
(67상학)

東國에 나서 東國에 살고 東國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趙在浩(65불교·전산원장兼 재단사무국장) 동문과 閔庚貞(67상학) 동문부부.

『동국은 저와 아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는 趙동문의 표정에 閔동문에 대한 사랑이 절로 배어있다.

『우연한 기회였죠. 제가 「전국대학 모의세계 UN총회」에 오르난대 표로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사람이 음서비로 같이 합석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알게 되었죠』

그후로 군 제대후 출입때까지 6년여간 혼들림없이 관계를 유지시켜온 趙동문은 그때를 이렇게 술회한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은 이해의 높도가 깊다고 봅니다. 후배들에게도 언어결혼을 추천하고 싶어요』 당시 여성생의 수가 손가락으로 헤아릴만큼 엄마되지 않은 가운데도 자신의 능력(?)

이 발휘된 것을 은연중에 사랑하는 눈치. 불교대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선선건립추진위 원장직도 맡아 지금의 성장(교정내 청동불상)을 건립하기도 했단다.

편지의 우애가 결혼연결

『아내가 고맙게 여겨졌던 때는 제가 ROTC 3기로 전방군부를 할 때 종종 면회를 와주고 편지교류를 끊지 않았던 일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앞 뒤로 가로막힌 산과 하늘 아래 그때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현재 슬하에 2남(고2·중2)을 두고, 강남구 삼성동 진 흥아파트 1동 1101호에 단란

『세가 전산원 쪽을 맡으면서 중점을 둘어 시행하고 싶었던 사업은 전산원의 시설 확충과 보안, 해외연수로 취업의 확대, 그리고 학과적인 규정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짚질라 말한다.

아내 역시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따라주

는 입장에서 어려운 일은 함께 의논해가며 실미리를 찾

기도 한다고.

친구같은 비판 큰도움돼

『때로는 친구관계가 되어 지간에 추억을 같이 더듬을 수 있어 옛날 기분이 되살아난다』는 趙동문은 자신의 업



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자식의 진로에 까지 편여하고 싶은 맘은 없닙니다만 아무래도母校에 진학한다면 금 삼첨화이겠죠』라면 무아들도 東國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표정.

학부는 불교학을 전공했으나 대학원에서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이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부모보다도 東國을 위해 현 신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趙동문은 둘째가기니면 서 터를 절저한 爱동국주의자.

무소신을 삼식과 정도(正道) 그리고 학과성이 기준을 두어 처리한다고 못박는다.

재단사무국장을 겸임하면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련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趙동문의 겸허한 태도에서 東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홍못이다.

교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할 일을 사소한 데서부터 찾는다는 趙동문은 요즘의 후배들에게『자신의 주의주장보다 먼저母校을 위해서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끝내드리겠습니다.

▲전영의(56사회) =제신공제조합 광중전화 상무이사 (778)4910

▲韓盛憲(57농학) =파주군 단현면 단현중학교 교감

▲윤경수(58영문)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APT 212동404호 (647)5385

▲강희찬(61정치) =강남구 개포동 929-1 현대 APT 2동 904호

▲조관식(61경제) =경복 안동군 서현면 저전동429(0571) 52-3656

▲이동률(61화학) =강남구 압구정동 360 현대 APT 61동 610호 (544) 8755

▲김영호(63상학) =대구시 동부경찰서 경비과장

▲이철섭(64정치) =도봉구 번동 466-21

▲김희찬(64상학) =강남구 도곡동 2차 APT 14동 1302호 (568) 5667

▲윤영길(65상학) =강남구 논현동 APT 1동 403호

▲이유관(66국문)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198-1 구아파크호텔 전무이사 (952) 0088

▲嚴基瑞(70경제) =강남구 방배동 925-6 카운터상대대표

▲전상린(71경영) =강남구개포동 주공고층 APT 505동 1316호

▲송영哲(71상학) =서울시 도

봉구 공릉 1동 509-13 조홍은 행 중소기업부 심사역

▲최종기(71농학)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468-5

▲李柱慶(73경제) =한국주택은행 본점간사실(78) -7711

새로파악된동국인

▲崔相鉉(48혜전) =성북구 돈암 1동 82-180 (94) 3191

▲吳福根(49혜전) =성북구 길음 3동 1043 (988) 1235

▲朴鍾敘(62법학)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용문중고등학교 교감 (73) 3533

▲洪鐘根(63정치) =성북구 정릉 1동 10-133동내문경찰서 수사과부장 (765) 4020

▲玄文熙(70경영) =강동구 잠실동 27 고층 APT 521동 603호 (424) 4717

▲李德元(72사회)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9-1 보원창고 대표

▲崔仁必(78정경) =강남구 논현동 142 영풍빌딩 고려아언株 인사과장 (547) 5699

▲이종원(82회계) =종로구 종로 2가 71-2 종로빌딩 6층 한신증권株 종로지점

▲吳鍾澤(86불교) =안동약품株 디체일부 (433) 3131

▲조상원(86정외) =종로구 명륜동 3가 1-201 (765) 3515

한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며 애써 둘을 떠나게 한다. 자신이나 아내 역시 東國이기에 맷길 수 있었다는 신념아래 東國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趙동문과 閔동문은 후배들에게『사회에서 본분과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화합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趙동문은 요즘의 후배들에게『자신의 주의주장보다 먼저母校을 위해서』라고 부탁하

기노。

도교80주년을 맞아 동분서주하는 교직원이나 후배재학생들을 보며 자신도 모교나 동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東國人이 되기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신이나 아내 역시 東國이기에 맷길 수 있었다는 신념아래 東國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趙동문과 閔동문은『후배들이 이 실력을 쌓아 모교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줄것이라 굳게 믿는다』며『동분, 환상할 것없이 교세를 더욱 신장시키고 명문사로서의 전통을 기리야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다.

東友會報 창간10주년 기념 광고기획[7] 「서로돕는 同門社會」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新羅명과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 경영)

세무사 鄭大鎮 (63법학)

稅務 상담·기장대리
실사·심판·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세무소

HD HYUNDAI

현대생산차종: 엑셀 AMX
프레스토 CXL
소나타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전화 한 통화로...”
TEL 274-3103~7
아간 914-6584

판매과장: 柳在善
(70농경·ROTC 8기)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信
一
山
金
金
屬
屬
商
商
工
業
社
社



대표이사 金鍾葉

(84 경원)



이용민君

報恩의 기회를 주십시오

다. 군 제대후 연속되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高入·大入검정 고시를 연차적으로 패스하면서 끝에 그리면 大學의 문에 서 끝에 그려졌다.

같이 폭학이지 그것이 얼마 큐이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는 대이상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짚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가 東岳의 문에 들어갔을 때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 東岳의 훈풍(?)이 그를 따뜻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끝이 아름한 사연이 숨어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군인대 까지 학교라곤 문턱에 서 볼 수 없었던 참혹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의 장벽이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배움의 의지만큼은 꿀을 수 없었나보

이력서 낼 때마다 나이 많다 거절

꽃피운 晚學의지 물거품 돼서야

뜻하게 맞아주었다.

내용인즉 이영권을 고집하는 모

교 직원이 그의 사정을 아처로이 여겨 아르바이트 일자리

“동창회관 건립도 미잖아”

현님먼저 아우먼저

○…얼마전 모교의 「東國80주년 기념관」이 착공되자, 많은 동문들, 달로 신장하는 校勢에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고…

그도 그렇겠지 개교80주년을 맞아 도교에 빙긋한 기념관이 들어서는 한편 이에 질세라 동창회에서도 회관건립기금이 순식간에 1억원을 넘어서 7만동문 모두의 열원인 동창회관도 머지않았단 생각에 펼듯.

이에 본동동동노도 한마디『이렇게 모교와 동창회가 서로돕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는 동문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온 편지

○…최근 본회로 발신인이 사단법인 제주사회복지회로 된 전지가 「동국인여러분께 물리는 말씀」이란 제하의 호소

문화과 함께 날아들었는데…

내용인즉 전남완도군소안면 당시나 난도에서는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굽이굽이하고 살아가는 주민들과, 낮에는 일을 해야하고 밤에는 꿈부하고 싶어도 전기불이 없어 제대로



東同動

공부하지 못하는 당시나 난도에서 어린이들의 딱한 사정을 소개하고, 이에 同복지회에서 자체발전기구 구입하여 둘을 밝히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키워주고 싶어도 비용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왕이면 모교 후배를…”

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신 東國人제위께서는 이어린이들이 행 베푸는 마음이 마땅하지 않을 터지요. 연락처: 제주시 읍단 2동 630-12 사단법인 제주시사회복지회 (271)769-3302

취업 좀 도와주세요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오는 취업시즌을 맞아 졸업을 앞둔 4학년 속에 어려운 취업전쟁(?) 속에 전전긍긍 중입니다.

人社시험 눈치작전, 취업과 의등 신종어를 만들어 내는 가하면, 고졸사원 공채에 체육인원의 몇몇이나 되는 대학졸업자들이 응시하는 등 기현상을 빚고 있는데 구직난 속에 모교의 후배들도 예외는 아닌듯. 직장 구하기에 부심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런 때일수록 7만동문 모두가 「기왕이면 모교후배를…」하고 이끌어 준다면 취업난이 아무리 심각한지를 문제없을겁니다요.

<소설문학사·2백86쪽·3천 3백권>

「바람으로 만드…」
李炳基
동문

모교 불교사를 즐언하고 현재 모교국문과 교수로 재직중

넓고 이력서를 제출해봐도 모두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어댈 뿐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거나 통증하지 않았다.

사회는 東岳의 아침처럼 폭학의 의지를 넓게 사거나 인정하거나 늘지 않고 그의客觀의 처지에만 화살을 쏘아댔다. 이제 7만여 東國인의 한 사람으로 모교의 명예를 등에 지고 사회의 첫 출발선에 선 그에게 실력발휘의 기회부여라는 의미에서도 재능의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인 李炳基 (56교교·교교수·시인) 동문의 첫번째 산문집「바람으로 만든 조약돌」이 출간됐다.

그동안 출간한 詩集·평론집에 이어, 7번째 서저인 이번 산문집에서李炳基은 極無의빛 같, 꿈을 찾는 상상력을 59편의 주제로 출간했다.

<어문간각·3천권>

詩集「壽樟記」

宋東均
동문

현재 「南國文學人會」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宋東均동문이 5번째 시집 「壽樟記」를 발간했다.

1, 2부로 나누어, 특히 2부에서 琴床洞 14부터 42까지는 고향에 대한涵수, 서정을 생생하게 그렸으며 미래에 대한 밝은 의지 역시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친우기·132쪽>

대우자동차(株)

- “멋과 개성이 함께 달린다”
- 멱시 - 나
- 로얄XQ
- 프린스 1.5
- 로얄 프린스
- 로얄 쏘롱
- 쏘롱 슈퍼

월드카 (르망) 판매개시
* 중고차 중개

판매대리: 崔鉉石 (74연경)

TEL. 544-1928 ~ 1128
(야간) 487-7539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B/D 1층)

신용·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화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중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桃園꽃집

화화 · 꽃바구니
생활 · 신부화
화분 · 동 · 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제)

서울 · 중구 충무로 4가 125-1
3층 42호

• 금은 · 보석 · 시계

三正堂

三正

779-3360

서울 · 중구 명동지하상가 마6호

代表 金基俊 61경제

東國人은
東國人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명운)

776-7895 ~ 7

752-4396 ~ 7

성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연말 연시 각종 모임은 호텔 송도 비치에서

동문회, 가족모임, 세미나,
각종 축하연 등을 최고의
시설 속에서 세련되고 품위 있는
서비스로 모십니다.

■ 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30분

- 대중소 연회장
- 부페 레스토랑
- 스키어리온지
- 카파솔
- 일식당
- 한식당
- 양식당
- 비치카운트
- 헬스센터·오락실
- 카테일리온지·바
- 스네·우동코너
- 제과점·아케이드



고객만을 생각하는
호텔 송도 비치
예약 : 인천직접합사 남구 동춘동 823번지
문서 : (032) 865-1311~20
서울 : 789-8838, 8839

遞信部通信工事免許業體



世宇電子通信公社



中区 乙支路 4街 315-1 (무광빌딩 510호)

代表電話 : 273-4048

直通電話 : 269-1144

代表 趙椿煥

(74 경영)

回 営業種目 回

各種通信設備維持保守

各種通信機器製作 및 設置

電子式自動交換機 및 키-폰設置

FAX·TELEX, 인터폰, MDF設置

成和빌딩

“傳統과 未來를 세계로 잇는 종로애브뉴”

분양회원 모집 734-0051-5



- 상권의 중심지로서 최대의 입지조건
- 합리적인 주차시설로 최대의 편의
- 고유기능의 여섯 공간과 최고의 기능
- 작은 피해까지도 보상해 드리는 보험에 가입
- 관광코스 지정 아케이드

F 12~13 오피스텔
F 5~11 오피스
F 3~4 미술공간·공연공간
F 1~2 은행공간
B 1 전통문화공간·면세점공간
B 2~4 주차공간



大京産業株式會社
成和實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8

대표이사 崔禎植 (經院 1期)

감사 李知映 (68商科·經院 1期)

공포의외인구단

네가 기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